

## 환경문제 : 기술인의 선택



신 응 배

(한양대 공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및  
환경공학연구소 소장)

1938년 4월 17일생. 1961년 한양대 공대 토목공학과 졸업. 1965년 서울대 대학원 토목공학과 졸업(석사). 1973년 미국 Vanderbilt대 졸업(공학). 1974년-90년 KIST 선임연구원, KAIST 책임연구원 겸임 교수, KIST 환경공학연구소실장 및 부장. 1988년-92년 대한환경공학회 6, 7대 회장. 1990년-92년 하와이 동-서문화센터본부 3대 회장. 1992년 UN 환경대상 수상. 1994년-현재 한양대 환경공학연구소 소장.

현대산업사회의 환경문제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사람의 윤리관이 그 핵심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사람이 생각하고 그 생각을 행위로 옮기고 그로부터 야기되는 결과 등 일련의 행위에 대한 선과 악의 표준, 자기 행위에 대한 스스로의 비판으로부터 자신을 검증하고 이를 통하여 자신의 도덕성을 강화하고 재무장하여야 하는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이 지녀야 할 최소한의 양심인 것입니다.

미국 현직 부통령 Al Gore가 그의 저서 “균형 잡힌 지구”에서 환경문제는 정치와 기술에 못지 않게 도덕적 가치의 문제라고 평가하였으며 지구적 환경 위기의 근원을 따지고 보면 환경문제는 정신적 내면 위기의 외적인 표출임을 더욱 확신하게 된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습은 점증적으로 변하여 왔으며 특히 근대 과학기술의 출현으로 인간의 삶의 모습은 급진적으로 변하였으며 사고의 체계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대변혁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가능케 하였던 요소는 과학과 기술이었으며 이는 또한 사회 발전의 원동력인 것입니다. 즉, 과학과 기술이 없는 사회 발전을 기약할 수 없는 반면 과학과 기술의 힘과 그의 환경 파괴력이 점점 증대되면서 과학과 기술이 우리에게 인겨 주는 이로움 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로운 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적절히 대처하여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이 과학과 기술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존재이므로 기대되는 이익의 극대화 와 해의 극소화를 통한 적절성이 더욱 중요하게 되고 강조되어야만 문명의 이기로서 과학기술의 사명을 다 한다 하겠습니까.

1987년에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가 진취적인 사고를 하는 22인을 선정하고 그들에게 “21세기에 인류가 당면할 과제가 무엇이나?”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들과 면담한 후 이 면담 내용을 기초로 “21세기의 과제”라는 책을 발간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면담자들은 “21세기의 인류의 삶의 모양새는 발전된 기술에 따라 결정된다기보다 오히려 새로운 발명이 끼칠 사회적인 충격을 소화시키는 인류의 능력에 의하여 결정 지워진다”고 믿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은 사고들은 급기야 ESSD라는 발전과 환경의 상관성을 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의 과학기술에 의하여 훼손된 환경과 인간과의 관계가 적절치 못함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여기에 동의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좀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위기를 초래케 된 지난날의 우리의 선택 의지가 과연 어떤 우리의 강력한 내력(内力)에 의한 것이냐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어떤 심성이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고자 말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오늘은 과거의 우리 자신이 내렸던 선택의 결과요 우리의 오늘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리게 되는 오늘의 길정이 후세에 미치게 될 충격을 정확히 이해하고 오늘의 문제 해결의 내안을 선택하여야 하는 도덕적 책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